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증거를 지키라      성경: 열왕기상 2장 1-9절

Tag:

1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들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5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벨의 아들 아브넬과 예렐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띠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6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7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래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8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므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

## 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9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왕상2:1-9)

다윗의 유언.

이 유언은 여느 유언 같지 않게 무서운 심판을 담고 있다.

왜냐면 정권과 관계된 유언이기 때문이다.

정권은 나라의 안위와 관계가 깊다. 정권의 첫 번째 임무가 나라의 안위이다.

정권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 나라에는 결코 정의가 존재하지 못하고 온갖 악독한 것들이 활개를 치게 되며, 골목 어린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인간으로서의 평안한 삶은 사라진다.

정권이 나약하면 정권을 찬탈하려는 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내란을 일으킬 것이며, 외세가 나라를 삼키려고 덤벼들 것이다. 그러면 전쟁의 위협 때문에 국민들은 평안할 날이 없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를 세우고 유지하는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나라마다 형통하고 부강하고 질서가 유지되고, 올바른 도덕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운다.

-특히 도덕은 통치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나라의 도덕 수준은 그 나라의 질을 결정한다. (개인도 마찬가지)

-나라에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나라의 정치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나라의 도덕 수준이 높을수록 혁신이 일어난다.

-왜냐면 혁신이란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적 잉여능력과 높은 도덕적 신용이 갖추어져야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나라의 통치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간신의 유혹에 빠져서 나라를 망치게 된다.

-세상에 똑똑한 통치자는 없다. 왜냐면 그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느라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40년 이상 오랫동안 통치하는 자는 아주 드물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와 그렇지 못한자가 있을 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통치하는 동안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진보하게 하는데 힘을 쏟게 된다.

-통치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는 천군천사에 의해서 호위를 받게 된다. 그러면 그는 적들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된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수업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도록 기도하자.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정치적 유언이 기록되어 있다.

### 1.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2)

-나라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착하고 선한 통치자 보다는 강력하고 결단력이 있는 통치자가 필요하다.

### 2. 말씀을 지키라

#### 3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법률;나라의 통치에 필요한 법

계명;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율례;주로 탈무드에 있는 심판에 관련된 판례집

증거;하나님의 역사개입 사건의 기록. 모세오경.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내용.

-이를 위한 경건한 생활은 당연하다.

- 개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임하셨는 지가 중요하다.

### 3. 나라의 기강을 세워라.

- 정의로우라
- 죄악을 단호하게 대적 할수록 나라는 든든히 서 간다.
- 요압;그는 군대장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유없이 두 번의 살인을 행했다. 그는 압살롬의 반역에는 동참하지 않았지만, 아도니아의 반역에는 동참하였다.
- 시므이;압살롬의 반역 때 그는 다윗을 저주 하였다. 다윗은 나라의 연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에게 아량을 베풀었으나, 그가 제 버릇 고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여론 정책을 위해서라도 살려두어서는 안되는 인물이다.
- 가택연금법을 통해서 사형시킴.
- 아도니아와 요압의 처형;아도니아는 아비삭을 짝사랑하면서 반역 사건이 발생하게 됨. 그 반역에 세속적인 사람 요압이 드디어 결탁하게 됨. 어찌보면 헤프닝일 수 있으나, 그 상대가 아비삭이었으므로 반역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심정적인 죄악임. 이미 그 마음속에 반역에 대한 생각이 있으므로 미리 처단함.
- (두 사람이 말은 안했어도 마음속으로 청탁을 주고받지 않았느냐)
-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개입이 예견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
-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영적전쟁으로서의 경건훈련

성경: 야고보서 5장 13-16절

Tag:

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약 5:13-16)

-영적 전쟁이란 마귀의 실제적인 위협을 감지하고 별이는 전쟁을 말한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감지하기 어렵다.

-영적 감지력 형성 과정;

말씀에 대한 지식.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말씀.(증거)

자신이 처한 위치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인한 해석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건개입에 대한 열망

(세속적 감지력 형성 과정;

세속적 카더라 통신에 노출됨. (특히 지인들의 자랑)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증언

자신이 처한 위치에 대한 자각과 사기꾼의 해석

저축해 놓은 자금 유출 사건 발생)

-그러므로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는 나의 삶을 변화 시킨다.

## 2. 영적 전쟁의 사령부로서의 교회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의 영적 책임자들을 말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영적 책임자들과 상의한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

-되도록 그 방면에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카더라 통신 적극 대처; 모든 문제는 비전문가들의 조언에서 발생함.)

-반드시 영적 리더들은 개인정보나 개개인의 생활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를 지켜야 한다.

-교회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내용을 대화의 소재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한다.

## 3. 서로 죄를 고백함.

-가장 높은 단계의 영적 전쟁

-죄의 고백을 악의적으로 사용해서는 않된다.

-비밀공유로 인한 친근감과 장단점이 많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비밀공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가 전제되어 있다.

-죄의 용납이 아니라, 죄인의 용납이며, 그 죄의 저주를 사랑으로 녹여내려는 차원에서의 회개를 뜻한다.

-죄의 고백은 당사자와 성직자에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교회 앞에 죄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다.  
(공공의 적)

